

“수확은 커녕, 복구도 엄두 못내” 폭설이 덮친 시설농가 ‘시름’

지붕 쌓인 눈 탓, 시설 하우스 용마루 내려앉고 휘어 연말 수확 무산, 복구 일손도 부족...“옴짝달싹 못 해”

“당장 내일부터 수확해야 하는데...옴짝달싹도 못하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전남 장성군 남면 덕성리 레드향 재배 시설하우스 농가, 농민 박장열(73)씨는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쏟아진 폭설로 박씨의 시설 하우스 용마루와 양쪽 지지대 등이 폭삭 주저앉아 있었다. ‘아치형’을 이뤄야 할 시설 하우스는 쌓인 눈에 1m 안팎 짓눌려 이곳저곳 형태가 일그러져 있었다.

농작물 일조량 조절에 쓰이는 실내 천정 위 보온 커튼까지 주저앉아, 키가 큰 나무는 가지와 잎 등이 짓겨져 있기도 했다.

박씨 부부가 6년째 일군 시설 하우스 5개 동 중 3개 동(연면적 1800㎡)이 이번 폭설·한파로 큰 타격을 입었다.

박씨는 눈 그친 전날 오후부터 틈틈이 시설하우스 물받음관 위에 올라 제설에 나섰지만 이내 자포자기했다.

하우스 지붕마다 5cm 안팎 눈이 잔뜩 쌓여 미끄러운 데다가, 홀로 제설 삽을 들고 길이 110m에 이르는 하우스 3개 동에 쌓인 눈을 모두 치우기란 역부족이었다.

박씨는 당초 오는 26일부터 수확 작업을 시작해 다음주 중 출하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확은 커녕, 시설물 복구마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눈이 녹기 시작해도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하우스 곳곳에 누수,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안쪽 깊은 곳까지는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다.

간신히 수확한다 해도 짓눌린 보온 커튼 탓에 일조량이 부족, 작황마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박씨는 전했다.

박씨는 “보온 커튼을 움직여야 수확 범위가 넓어지지만 어쩔사리 만 레드향도 별을 충분히 못 본 탓에 신맛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 막바지 충분히 기온이 보장돼야 한다. 시설물 붕괴 위험도 있어 온종일 작동도 엄두가 안 난다”고 밝혔다.

이어 “일손이 턱없이 모자라다. 수확도, 복구도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지붕 위에 쌓인 눈을 퍼내고 나무 상태를 살펴가며 수확도 해야 하지만 좀처럼 엄두가 안 난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딸기 재배 농민 도지현(51·여)씨도

출하를 앞두고 갑작스레 입은 폭설 피해에 근심이 가득했다.

시설하우스 곳곳을 둘러보면 도씨는 지붕에서 눈 녹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실내 곳곳에선 물이 줄줄 새고, 쌓인 눈에 짓눌려 흰 듯한 용머리와 보온용 커튼이 눈에 띄었다. 막 붓게 익어가던 딸기 열매 곳곳엔 물기가 묻어 있었고, 젖은 잎사귀는 제 빛깔을 잃은 듯 했다.

6년 전 남편과 귀농한 도씨는 알뜰살뜰 키운 딸기를 구정 설 연휴에 맞춰 출하키로 했으나,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딸기는 햇볕을 충분히 보지 못하면 당도가 떨어지는데 보온 커튼 작동이 어려워 품질을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이 물기를 머금은 잎사귀에는 잿빛 곰팡이, 꽃곰팡이 등 각종 병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상적인 생육 환경 속에서 나무가 웃자라면 딸기 영양분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도씨는 걱정했다.

도씨는 “한 해 결실인 딸기가 잘 익어가고 있었고 연말연시 수확만 잘 마치면 됐다. 시설물 피해는 처음 경험해 봐 당혹스럽다”며 “신속한 복구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성군도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농작 시설·축산업 농가 피해 조사에 나섰다. 현재



25일 오전 전남 장성군 덕성리 시설하우스에서 레드향 재배 농민 박장열(73)씨가 하우스를 덮친 눈을 치우고 있다.

까지 레드향·딸기·토마토·감자 등 6개 품목 시설 하우스 12개동이 시설물 파손 피해를 입었다. 농업시설물과 염소 축사(6마리 폐사) 등도 다수 폭설 피해로 집계됐다.

잠정 피해 규모는 장성에서만 3억 1442만 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폭설 기간 중 장성에서 가장 많이 쌓인 눈의 양(최심 적설량)은 지난 24일 기준 36.1cm다. 23일에도 최심 적설량은 35.3cm로 확인됐다.

장성=기동취재본부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남기는 추억 크리스마스인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는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에이미, 세번째 마약 유죄 확정...징역 3년

졸피뎀 혐의로 강제출국...귀국 직후 마약 혐의 “강요 당해 억지로 마약” 주장...대법까지 배척 프로포폴 집행유예, 졸피뎀 벌금형 이어 실행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A씨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1년 2-8월 A씨와 마약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5회에 걸쳐 필로폰 3.5g과 케타민 2g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8월 6회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게는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가 자신을 폭행해

강제로 마약을 구매·투약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가 강요 행위로 인해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것이 아니라 이씨와 A씨가 공모해 마약을 구매·투약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이씨에게 일부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일부 사정은 인정했다. 다만 마약을 구매·투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씨와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벌금 500만원)로 처벌을 받았다. 강제출국된 후 지난해 1월 귀국했다. 이씨는 귀국 후 다시 마약에 손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행을 확정 받은 것이다.

뉴스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